



Hello! My name is Sister Virginia Pascaretta. I am the youngest of four siblings. I had a brother and two sisters. I am the last living member of my immediate family. It was a wonderful family. My parents were born in Italy. My mother came to America when she was three years old with her parents and my father came by himself at age sixteen. He later served in the army in World War I. My mother became an expert seamstress and my dad, in addition to working in the mill, became a great landscaper. My siblings and I all took piano lessons. We grew up listening to the opera and football games on Saturdays.

I first felt the call to become a sister when I was still in grade school, I was twelve years old. When I went to Elizabeth Seton High School, I met the Sisters of Charity for the first time and learned to appreciate the simplicity of their lives of service to others. As I moved through my high school years, I felt God's call in my heart grow stronger.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on September 8, 1949.

As postulants and novices, we grew in our understanding of religious life and its meaning. I prayed and thanked God for the gift of becoming a Sister of Charity. When I became a second-year novice, I was sent to DePaul Institute for the Deaf where the sisters taught children who were deaf and hearing-impaired. These children needed special teaching support to help them learn to use and speak the English language. I spent most of my years as a Sister of Charity teaching deaf children. Class preparation and planning for them helped me to grow as a teacher and learn to create ways to help them advance in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DePaul is where I learned to teach!

When I left DePaul, I worked in schools with hearing children. My last twelve years of teaching were at St. Therese School where Sister Eileen Johnston was principal. I became a religion teacher to children in grades two, three, four and five. What I learned at DePaul, supported my teaching and fostered my ability to teach hearing students. I came to know and love them just as I had learned to know and love my deaf students. Teaching was very satisfying and rewarding to me. I believe that God gave me the graces and gifts I needed to help me grow as a teacher. I can never thank God enough for the blessings and graces I have received as a Sister of Charity.

In July of 2020 I moved to Caritas Christi. We are blessed here with the goodness and kindness of the sisters and those who serve our needs in many ways. I am learning to work at the front desk to take phone calls and to let visitors and others into the building. I thank God for calling me to be a Sister of Charity and for the gifts, challenges, ministries, and opportunities afforded me as I grew in the



community and as a teacher. I cannot completely express the love I have for this community, for its members who have been guiding lights for me in my many years as a Sister of Charity. I pray that, by the example of our dear Elizabeth, Vincent, and Louise, I shall always be ready and willing to respond with gratitude and love to those whom I may be called to serve next. I cannot thank God enough!





안녕하세요! 버지니아 패스커레타 Virginia Pascaretta 수녀입니다. 저는 4남매 중 막내로 오빠 한 명과 언니 두 명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세상에 남아있지요. 우리는 아주 멋진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세 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오셨고, 아버지는 열여섯 살에 홀로 미국으로 오셔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재봉 일을 전문으로 하시고 아버지는 제철소에서 일하시면서 훌륭한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매들은 모두 피아노 레슨을 받고, 토요일이면 오페라와 미식축구 중계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수도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느낀 것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열두 살 때였지요. 그리고는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 Elizabeth Seton High School에 들어가 처음으로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수녀님들의 소박한 삶을 보고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제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이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1949년 9월 8일에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청원자와 수련자로서 우리는 수도생활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의 수녀로 부르신 하느님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2년 수련자 때 우리 수녀님들이 청각 장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드 폴 인스티튜트 DePaul Institute for the Deaf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특별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의 수녀로서 제 수도생활의 대부분을 청각 장애를 가지고 듣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수업 준비와 계획을 하면서 교사로서 성장했으며 아이들이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발전하도록 도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이 곳, 드 폴 인스티튜트에서 가르치는 법을 배웠지요!



드 폴 인스티튜트를 떠나서는 이제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 교직생활의 마지막 12년을 아일린 존스톤 Eileen Johnston 수녀님이 교장으로 있었던 성 테레사 St. Therese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종교교사로 2학년부터 5학년까지 가르쳤지요. 드 폴 인스티튜트에서 배운 것들이 제 교육의 버팀목이 되었고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듯이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사도직은 저에게 아주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제가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은총과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수녀로서 받은 축복과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요!

2020년 7월에 까리타스 크리스티에 들어왔습니다. 선하고 친절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에 봉사하는 분들과 우리 수녀님들이 함께 있으니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지금 저는 안내실에서 전화를 받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의 수녀로 불러 주시고, 우리 수도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면서 또한

교사로서 받은 은사, 도전, 사도직과 많은 기회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수녀로서 살아온 긴 시간 동안 저를 빛으로 인도해 준 우리 수녀님들과 우리 수녀회에 대한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올 엘리사벳과 빈센트, 루이스의 모범을 따라 앞으로 제가 봉사할 이들에게 감사와 사랑으로 항상 준비하여 기꺼이 응답하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